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학석사 학위논문

가사노동·돌봄노동 분담과 성역할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이 지 영

가사노동·돌봄노동 분담과 성역할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석호

이 논문을 사회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이지영

이지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2**월

위 원 장 _____ **이 재 열**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추 지 현** _____ **(인)**

위 원 _____ **김 석 호**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의 분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개인의 성역할 태도에 의한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은 가사노동 혹은 돌봄노동이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밀접한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돌봄노동을 가사노동과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측정하거나, 한쪽만을 대상으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왔다. 혹은, 개인의 성역할 태도가 갖는 조절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기혼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남편과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가정에서는 가사노동을 책임지는 이중부담에 시달린다. 시장에서의 임금노동을 장려받으면서도 가족 돌봄과 가사노동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어쩔 수 없이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모든 여성에게 일관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이는 불평등한 가사분담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현재 혼인상태가 기혼이며 배우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만 고려하였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표본은 남녀 각 14,206명, 총 28,412명이다.

연구 결과, 개인의 성역할 태도가 갖는 조절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사노동 혹은 돌봄노동이 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일관되게 낮추는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개인의 성역할 태도를 상호작용항으로 투입했을 때에는 가사분담과 돌봄분담이 개인

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우선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는 여성의 경우에는,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을 여성의 책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물론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돌봄의 경우에는 여성 고유의 역할이자 책임으로 여겨지며, 여성성의 수행이자 사랑의 표현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사노동에 비해서 '노동'으로 여겨지는 정도가 낮아,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가사노동의 경우에도 분담률이 0%의 수준에서 50%까지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모양을 나타냈지만, 절반이 넘는 수준에서는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curve-linear한 모양을 나타냈다. 한편,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갖는 여성의 경우에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많이 분담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남성과 달리 여성의 삶에 있어서 가사 및 돌봄노동은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개인의 성역할 태도와는 달리, 현실적인 선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사와 돌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경우라면 기혼 여성은 더욱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인식적인 차원의 개선과 달리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남성들이 실질적으로 가사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주요어 : 가사분담, 돌봄분담, 삶의 만족도, 성역할 태도, 조절효과
학 번 : 2019-27507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4

제 1 절 가사·돌봄노동 분담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4

1. 가사노동 분담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 4

2. 돌봄노동 분담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 8

제 2 절 성역할 태도와 가사·돌봄노동 분담 간의 관계 11

1. 가구 내 노동 분담 이론 ····· 11

(1) 상대적 자원 이론 ····· 11

(2) 시간 가용성 이론 ····· 13

(3)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 ····· 14

2. 성역할 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 16

3. 가사분담-성역할 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 17

제 3 장 연구방법 ····· 21

제 1 절 분석자료 ····· 21

제 2 절 변수정의 ····· 22

제 3 절 분석방법 ····· 25

제 4 장 분석결과 ····· 27

제 1 절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의 성별 격차 ····· 27

제 2 절 가사분담-성역할 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32

제 5 장 결론 및 논의 ····· 38

참고문헌 ····· 40
Abstract ····· 43

표 목 차

<표 1>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 인식과 가사노동시간의 변화 … 10
<표 2> 생활시간조사 행동 분류표 …… 24
<표 3> 변수들의 기술통계 …… 26
<표 4> 성별에 따른 가사노동분담률 및 돌봄노동분담률의 차이 …… 28
<표 5> 가사노동량과 돌봄노동량이 0(분)으로 기록된 남성의 비율 …… 28
<표 6> 남성의 가사노동분담률 및 돌봄노동분담률에 대한 토빗회귀분석 …… 30
<표 7>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분담률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 33
<표 8> 가사분담*성역할 태도가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33

그 림 목 차

<그림 1> 성별 가사노동시간 격차 …… 29
<그림 2> 가사노동 분담률*성역할 태도에 따른 여성의 삶의 만족도 …… 34
<그림 3> 돌봄노동 분담률*성역할 태도에 따른 여성의 삶의 만족도 …… 37

제 1 장 서론

한국 사회에서 기혼 여성이 유난히 불행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혼을 선택한 이들이 ‘불행’을 감내한 것은 아닐 텐데 말이다. 한국의 부부를 대상으로 수행한 여러 연구들에서 기혼 여성은 남성보다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일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김태현 · 박주희, 2005; 이수연, 2000; 김혜성 · 그레이스정, 2019). 이는 여성이 결혼 이후에 겪는 출산과 육아 등 생애 사건에서의 어려움이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경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은 한 개인의 것만이 아니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만족감은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생각과 선호의 결과이다(정현숙, 2001; 조혜선, 2003). ‘행복한 상태’는 삶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고, 비교적 많은 양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도달하는 것이므로, 결혼과 출산의 경험을 통해 여성과 남성의 행복도가 달라진다면, 이는 결혼 생활에서 겪는 경험이 양쪽에게 차별적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가사와 육아의 불평등한 분담은 여성의 행복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유로 비혼 혹은 비출산을 선택하는 여성도 증가하고 있다(김혜성 · 그레이스정, 2019).

모든 사회가 같은 패턴을 보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결혼 이후,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결혼을 통해 얻는 전반적인 이득이 남성에게 편중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Rudolf, 2015).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가사노동의 부담은 대부분 아내의 몫이다. 통계청(2020)에서 발표한 일-가정 양립지표에 의하면, 여성이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87.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반수로 약 59.1%였고, 이는 2년 전 응답자

비율(53.5%)에 비해 5.6%p 증가한 수치였다. 그러나 '실제로'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2017년 기준 16.5%로, 앞서 언급한 '인식 수준'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다. OECD 국가 평균 남성 가사분담률이 33.6%인 것에 비교하면 한국의 가사분담은 최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기혼 여성들은 일하면서 공평한 가사분담을 원하지만, 독박 가사와 육아라는 현실과의 괴리로 행복하지 않다. 가사노동의 일방적인 부담과 불공평한 역할분담은 그 자체로 성 불평등의 문제일 뿐 아니라 여성의 여가시간을 감소시키고 생활 만족과 결혼 만족, 주관적 행복감을 낮춤으로써 복지를 저해시키는 요인이다(김주현 · 문영주, 2010; 주익현, 2012; 허수연 · 김한성, 2019).

그러나, 불평등한 가사분담이 모든 여성의 행복감을 일관되게 낮추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의 연구 결과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맞벌이 여성의 결혼 생활 행복감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를 제외하고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오윤자 · 최서영, 2017). 이는 생애발달주기에 따른 집단별 경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으며, 높은 연령대일수록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부의 가사분담이 여성의 주관적인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강유진, 2015).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남편이 가사노동에 투입한 시간보다 가사노동의 내용에 대한 질적 평가, 공평성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가사와 육아 불평등이, 또 다른 이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이는 결국 불평등한 가사분담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서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결정요인은 연구마다 상이하게 제시되고 있어 일관된 설명을 도출하기 어렵지만, 선행연구들은 이에 대해 부부의 유급노동으로 인한 가용시간의 차이, 소득과 같은 상대적인 자원에 따른 협상력의 차이, 그리고 성역할 태도의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에서 개인

의 성역할 태도는 가사분담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를 형성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성역할 태도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정 및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적절한 역할이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이나 신념'으로 정의된다(Stickney&Konard, 2012, 이혜정 · 송다영, 2020). 이는 곧 사회문화적으로는 전통적인 성별 분리 기제에서 성통합적 평등양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지만, 성역할 태도의 차이에 따라 개인의 인식 차원에서는 실제와의 간극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주혜진, 2016).

일반적으로 돌봄을 둘러싼 태도와 인식은 성역할 태도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처럼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성역할에 평등주의적이었던 젊은 부부들도 일과 가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주로 여성에게 육아와 가사 등을 기대하게 된다. 결국, '취업을 지지하는 보수주의' 유형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들은 임금노동을 장려받으면서도 가족 돌봄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어쩔 수 없이 수행하게 된다(박경순 · 박영란, 2018; 이혜정 · 송다영, 2020). 한편,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성격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돌봄노동은 즐거움과 보상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주은선 외, 2014), 아이의 교육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단순 가사노동과는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보면, 여성의 가사분담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역할 태도에 의한 조절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가사분담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따라 주관적인 행복감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성역할 태도를 고려하지 않고 가사분담-주관적 행복감 간에 단선적인 관계를 설정한다면, 둘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가사노동 분담과 돌봄노동의 분담이 성역할 태도에 따라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가사·돌봄노동 분담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1. 가사노동 분담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개인이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혹은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는지’와 같은 개념은 그 자체로 정의 내리기 애매하고 추상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용어로는 행복감, 심리적 안녕 상태, 적응, 사기 등이 있다(강재연 외, 2000). 최근 들어 자주 등장하는 행복은 이전까지 우리 삶의 전반적인 수준 혹은 삶의 질을 파악하는데 주로 사용되어 왔던 경제적 지표들, 대표적으로 소득이 지닌 설명력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변미리 외, 2015; 한준, 2015; 주혜진, 2017). 경제성장의 척도이자 국민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었던 GDP가 삶의 질을 대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6년 ‘세계행복지도’가 발표되었고, 2012년 처음으로 UN의 ‘세계행복보고서’가 발표되었다. OECD에서도 2011년부터 매년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OECD의 BLI는 크게 두 차원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물질적 삶의 조건 차원이며, 다른 하나는 삶의 질 차원이다. 그중에서도 삶의 질을 측정하는 영역은 개인의 건강 상태, 일과 삶의 조화,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공공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적 질, 개인적 안전, 주관적 안녕 등

을 포함한다(정해식 · 김성아, 2015). 물론 행복감이나 개인의 '주관적 안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관적이기도 하고, 사회문화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마다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 비해 분명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물질적 풍요가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이에 비례하여 높아지기만 한 것은 아니다. 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 평가에서 한국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1점을 기록했다. OECD 평균이 6.5점인 것에 비해 낮은 편이며, 순위는 매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OECD, 2020). 다른 여러 객관적 지표에서는 상당 부분 개선되거나, OECD 회원국 가운에서도 이미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와 같이 주관적인 응답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항목에서는 유난히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객관적 · 물질적 조건들이 개선되었음에도 주관적인 만족도가 쉽게 높아지지 않는 것은, 실제로 삶을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상황이나 조건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삶에 만족한다'는 생각이 매우 주관적인 삶에 대한 평가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객관적인 수치만으로 표현되지 않는 삶의 불만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비슷한 측면에서, '여성 행복 감소의 역설'은 물질적인 조건이 보여주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Stevenson&Wolfers, 2009). 여성의 삶의 질과 관련한 객관적 조건은 상승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삶의 만족도는 점차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 동안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경제활동 참여는 꾸준히 상승했다. 대학진학률은 1999년 60.9%에서 2019년 기준 73.8%(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1999-2019)로 상승하였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9년 47.6%에서 53.5%로(통계청, 1999-2019)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일과 가정생활 갈등, 스트레스와 우울, 경력단절, 출

산 기피 등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김근식 · 윤옥화, 2009; 김혜성 · 그레이스정, 2019; 원숙연, 2015; 이승호 · 박미진, 2017; 이진우 · 금현섭, 2020, 주혜진, 2016, 2017; 허수연, 2016).

이러한 모순적인 현상의 기저에는 무엇보다 남성과는 상이한 조건과 요구에 노출된 여성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이진우 · 금현섭, 2020). 과거에 비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노동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일-가정의 이중부담(double burden)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여성이며, 무급가사노동의 영역은 아내의 몫이다. OECD에서는 여성들이 부담하고 있는 돌봄과 가사를 젠더 불평등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부부의 상대적인 소득이나 노동시간의 제약, 성 역할 인식 등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OECD, 2017). 가사노동의 일방적인 부담은 그 자체로 성 불평등의 문제일 뿐 아니라, 여성의 여가시간을 감소시키고 생활 만족과 결혼 만족, 개인의 주관적인 행복감을 낮춤으로써 복지를 저해시키는 요인이다(김주현 · 문영주, 2010; 주익현, 2012; 허수연 · 김한성, 2019).

이와 같은 가구 내 돌봄과 가사의 불평등한 배분에 대한 연구들은 상당히 축적되어 왔으나(강유진, 2015; 박미진, 2020; 이창순, 2014; 임은정, 2019; 장인수, 2020), 이러한 불평등한 배분이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다양한 가정과 측정 상의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돌봄과 가사노동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다(채로 · 이기영, 2004). 돌봄과 가사노동의 성격을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체로 자녀를 돌보는 돌봄은 부모에게 보람을 주거나 즐거운 일로 여겨지기도 하며, 때문에 남성들의 돌봄노동과 양육 참여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사노동은 청소와 빨래, 요리 등 반복적이고 지루한 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Blood &Wolfe, 1960; Oakley, 1974). 따라서 가사노동 혹은 돌봄노동과 삶

의 만족도와의 관계는 상충적일 수 있기에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혹은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의 절대적 시간량만 고려하거나, 가사부담의 주관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아내의 인식으로 측정하는 경우를 들 수도 있다. 물론 여성보다 남성의 가사노동량이 매우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분담 정도와 그 강도를 고려하지 않게 된다면 주관적 인식의 개별적 상이성으로 인해 이를 가늠하거나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가사노동의 분담 비중이 아닌 절대적 시간만을 비교하게 된다면, 가구별로 요구되는 가사의 총량이 상이할 수 있음을 간과하게 된다. 미취학 아동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가사노동 혹은 돌봄노동의 시간이 더욱 요구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청결에 대한 선호, 그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등이 가구별 가사의 총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불평등한 가사분담이 모든 여성의 행복감을 일관되게 낮추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맞벌이 여성의 결혼 생활 행복감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를 제외하면 40대부터 60대 이상까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내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오윤자 · 최서영, 2017). 이는 생애발달주기에 따른 집단별 경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으며, 높은 연령대일수록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부의 가사분담이 여성의 주관적인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강유진, 2015). 가사분담이 삶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역할 태도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성역할 태도의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가사노동의 분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같은 가구에 속해있는 부부를 기준으로 하여 가구별 가사의 총량(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아내-남편이 얼만큼씩 분담하고 있는지를 계산하여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돌봄노동 분담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돌봄(care)’이라는 행위는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환자나 노인,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활동과 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Daly, 2002: 252). 돌봄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특성이 달라진다. ‘자녀’를 돌보는 것은 스스로 생활하기 힘든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녀와 감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과정이자, 자녀의 적절한 발달과 업을 충족시키기 위한 투자의 시간이기도 하다. 한편, ‘노인’을 돌보는 행위는 쇠약해진 신체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고, 부차적으로 노인과의 정서적 교감이 이루어지는 의미도 있다. 또한,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장애를 가진 자를 돌보는 행위는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간병을 위한 목적으로 돌봄이 수행되며, 노인 돌봄과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상호작용은 자녀를 대상으로 돌봄 행위를 하는 경우보다는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박미진, 2020). 돌봄은 의무와 헌신, 신뢰에 기반을 둔 개인적 유대가 중요하며 돌봄 제공자-돌봄 수혜자(caregiver-care receiver)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제공될 수 있다(Daly&Lewis, 2000).

가부장적 성별 분업 이데올로기는 여성들로 하여금 가족 내에서 필요한 돌봄노동을 수행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돌봄은 그동안 여성이 담당해왔던 고유의 역할이자 여성 특정적인 윤리와 노동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설명되어 왔다. 오랜 기간 자녀 양육 및 돌봄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음을 상정하고 이러한 성별 분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법과 제도, 행정, 교육 등이 맞춰져 왔다는 것은 문제적이다. 돌봄노동은 특히나 노동이 아닌 사랑의 표현이자 여성성의 수행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Daly&Lewis, 2000). 이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유급 돌봄노동은 무급 가사노동의 변형으로서 여겨졌고, 고유한 기준과 훈련요건, 급여 체계를 가진 임금노동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돌봄을 진정한 일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거나(Duffy, 2011), 혹은 돌봄 관

계 형성이 여성에게 본성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결국 돌봄노동의 숙련을 인정하지 않고, 유급 돌봄노동의 저임금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류임량, 2016).

한편, 돌봄노동이 여성의 삶의 만족감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가정 내에서 수행되는 돌봄노동의 영역은 주로 아이를 돌보는 양육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김혜성 · 그레이스정, 2019; 박미진, 2020; 윤자영, 2018). 돌봄 중에서도 자녀를 돌보는 행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적 의미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며, 부모와 자식 간의 공유시간을 통해 정서적 만족감을 얻게 되어 그 자체로도 삶의 질을 높이는 시간으로 간주되기도 한다(주은선 외, 2014). 이로 인해, 남성의 양육분담이나 돌봄 시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이다(고선주, 1997; 김혜성 · 그레이스정, 2019; 박미진, 2020; 윤자영, 2018). 특히 이는 기존에 여성의 일로 여겨졌던 가사노동의 영역 중 하나인 자녀 양육 부담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갖지만, 동시에 자녀의 발달을 위해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교육적 의의를 갖기도 한다(고선주, 1997). 가족구조의 변화,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아버지 역할이 등장하면서 남성들 스스로 자녀 양육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아진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들에게 양육 분담은 더 이상 스트레스 요인이 아닌,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의 원천으로 여겨지기 시작하였다(손소영, 2013). 그러나 이러한 자녀 돌봄이 여성의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 경험으로 일관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유아기의 자녀를 둔 부부는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자원과 역할분담의 변화를 요구받게 되며(윤기봉 · 지연경, 2017), 이로 인해 결혼만족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시점에서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민녀 · 채규만, 2006; 김혜성 · 그레이스정, 2019). 이러한 결과는, 자녀 돌봄의 과중한 부담이 여성의 행복감을 위협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 과정에서 남편이 적극적으로 양육을 분담한다면 그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손영빈 · 윤기영, 2011; 이미현, 2015) 오히려 여성의 결혼만족도를 높

이는 요인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노인 돌봄이나 간병 등과 같은 무급돌봄노동을 가정 내에서 수행하는 여성의 삶의 만족감 혹은 행복을 규명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오히려 노인을 돌보는 행위나 간병을 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돌봄의 제도화와 관련한 연구들이 대다수이다(류임량, 2016; 이숙진, 2011). 이로 인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노동은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 자녀 양육 뿐 아니라, 노인 돌봄 혹은 간병 등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이라면 집이라는 공간에서의 노동은 가사노동과는 또 다른 고도의 노력과 경험을 필요로 할 것이다. 돌봄노동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긴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며, 감정 노동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끊임없이 감정을 조절하고 인내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김송이, 2012; 박기남, 2009; 최희경, 2011).

따라서 가사노동을 측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돌봄 노동의 부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같은 가구에 속해있는 부부를 기준으로 하여 가구별 돌봄의 총량(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아내-남편이 얼만큼씩 분담하고 있는지를 계산하여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는 가사노동에 돌봄노동까지 포함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으나(은기수, 2009; 이창순, 2014; 주익현, 2012; 차성란, 1998; 허수연, 2008),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구분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제 2 절 성역할 태도와 가사·돌봄노동 분담 간의 관계

이 절에서는 우선 가구 내 노동의 분담을 설명하는 이론 및 기존 연구를 검토한다. 가사노동분업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은 크게 상대적 자원 이론, 시간 가용성 이론,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 세 가지로 나눠진다. 불평등한 가사분담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은 나라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3가지 이론 중에서, 상대적 자원 이론과 시간 가용성 이론은 경제적 효율성 관점의 이론으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부부의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가사를 분담한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가사분담의 영역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가 개인의 '성역할 태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역할 태도가 가사 및 돌봄노동의 분담,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이어나간다.

1. 가구 내 노동 분담 이론

(1) 상대적 자원 이론

상대적 자원 이론은, 가구 내 노동 분배를 '성별과 무관하게 부부 중 노동시장에서의 자원 상황이 더 우수한 사람이 덜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Blood&Wolfe, 1960). 부부 중 상대적으로 자원이 더 많은 사람이 협상(Bargaining) 과정에서 자신의 자원을 이용하여 가구 내 노동을 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가사노동은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노동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시간을 들여 일을 해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무

급노동이고, 그 효과가 크게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는 이 노동을 피하고자 일종의 흥정과 협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Becker(2009)는 시장 영역과 비시장 영역 중에서 한 쪽에 더 숙련되어있는 개인들이 각 영역을 맡는 '분화(specialization)'를 통해 각 가구는 노동을 분담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한다고 설명하였다. 시장노동에 우위가 있는 개인이 시장노동을 전담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하고, 반대로 가구 내 노동에 우위가 있는 개인은 가사와 돌봄을 전담함으로써 가구 효용을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분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Becker의 분화 이론은 남성이 시장노동을 전담하고, 여성이 가사와 돌봄을 전담하는 남성 생계부양자 모형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에 한해 설명력을 가진다. 현재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2인 소득자 가구 모형이 증가함에 따라, 가사와 돌봄에 있어 부부의 상대적인 참여 '정도'를 해석하는 경향이 다수가 되었다(Esping-Andersen, 2014). 부부간 자원 수준을 비교하여 시장노동에 대한 우위가 있는 사람이 가구 내 노동을 덜 하고, 우위가 없는 사람은 가구 내 노동을 더 하는 것이다. 부부간 자원 수준이 비슷해진다면 부부의 가사와 돌봄 시간도 비슷해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상대적 자원 이론을 검증하는 논문들에서는 그 자원으로 주로 소득이나 교육수준,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를 활용한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경제적 자원은 소득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부부간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을수록 가사노동을 회피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으면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소득과 가사노동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은 상대적 자원 이론의 주장을 상당 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아내일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짧게 나타난다.

그러나 남편의 가사노동이 상대적 자원의 유무에 영향받는 정도에 비해 아내들이 좀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reenstein, 2000). 무엇보다도 아내의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이 남편

보다 훨씬 높은 구간이 되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오히려 다시 증가하고,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김수정 · 김은지, 2007; 은기수, 2009; 이창순, 2014). 이러한 모습은 미국의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자료를 활용한 Brines(1994)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가사노동이 성별과 무관한 경제적 효율성에 따른 분담이 아니라, 여전히 '여성의 일'로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임은정, 2019).

(2) 시간 가용성 이론

시간 가용성 이론(time availability)은 앞서 제시한 상대적 자원 이론과 마찬가지로 경제 효율적 관점이지만, '가사노동에 할애할 수 있는 가용시간'의 측면에서 설명한다는 지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들은 합리적으로 시간을 배분하며, 이 과정을 통해 가구의 한계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경제학적 가정이 이 이론의 바탕이 되고 있다. Coverman(1985)은 가구 내 노동에 대한 수요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 가구 내 노동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젠더와 상관없이 부부의 가사와 돌봄에 대한 참여는 그들의 가용할 수 있는 시간에 달려있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다(Becker, 1981; Shelton and John, 1996).

이론상으로는 시장노동에서의 상대적 지위가 낮은 아내들이 결과적으로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게 되어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사노동에 특화되어 있어서 남성들은 밖에서 노동을 하며 경제적 자원을 획득하고, 여성들은 출산, 육아 및 가족을 돌보는 일을 분담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개인의 가용할 수 있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는 시장노동시간이 있다.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수록 가구 내 노동에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기존의 연구들도 대체로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과 상관없이 본인의 시

장노동시간이 길수록 본인의 가사 참여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은기수, 2009; 이창순, 2014; 주익현, 2012). 본인의 시장노동 시간이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논문들도 다수 있다(김수정 외, 2007; 배호중, 2015; 주익현, 2012). 개인의 시장노동시간에 의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곧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비중에까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에서 가정하는 대로 정말 남성이 시장노동에, 여성이 가사노동에 특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은기수, 2009). 여전히 여성들의 상대적 자원에 관계없이 아내들은 여전히 가사노동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으며, 남편의 가사분담률은 그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Greenstein, 2000). 상대적 자원 이론과 마찬가지로 시간 가용성 이론은 경제적 효율성과 교환의 논리에 토대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들 간의, 혹은 아내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에는 유효할 수 있겠지만, 아내와 남편 사이의 차이를 적절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이창순, 2014).

(3)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은 가사노동의 분담이 경제적 교환의 논리가 아닌 개인의 젠더 이데올로기 혹은 성역할 태도(gender role attitudes)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젠더 이데올로기란, 개인이 전통적으로 결혼과 가족에 대해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역할을 어떻게 여기는지에 관한 생각이다(Greenstein, 1996). 즉, 개인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해 동조하는 생각을 가질수록 전통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지게 되고, 전통적 성역할에 대해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수록 평등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갖는 것이다.

가사노동분업과 관련해서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성과 여성 모두 평등

한 가치나 태도를 지니고 있을수록 가사분업도 균등하게 나누어 한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은 부분적으로 지지되는데, 그 이유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는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Bianchi et al., 2000).

개인의 일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은 전통적 젠더 역할이 무의식적으로 발현, 강화되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의식적 수준에서 '젠더 이데올로기' 역시 발현되고, 강화 혹은 수정되는 경험을 하는 장이기도 하다. 게다가 부부간 가구 내 노동의 부담이 부부의 합리적인 협상 과정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이 존재하고,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부부 간 상호작용 과정 중에 강화 혹은 수정될 수 있는 '역동적' 인 개념임을 고려한다면(임은정, 2019), 개인의 젠더 이데올로기와 실제 가사노동 분담 형태가 일치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을 것이다.

2. 성역할 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인 '성역할태도'란 무엇인가? 성역할은 특정 사회 내에서 남녀를 구분하는 특징에 대해 사람들 사이의 합의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Broverman, 1972). 일반적으로 가정 및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적절한 역할이나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인식이나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개인들은 성별에 따라 적절하다고 규정된 성역할을 권장 받기도 하고, 반대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에는 제재를 받는 형식으로 사회 속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치기도 한다(문지선, 2017; 이혜정 · 송다영, 2020). 성역할 태도는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에 기초하여 분류 및 측정되어 왔다(김태현 · 박주희, 2005).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정을 기반으로 한 역할 수행을 기대하는 경우라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 여성과 남성의 성별 구분에 따른 역할을 분리하지 않고 가정 및 사회의 역할 수행을 기대하는 경우라면 '현대적'인 성역할 태도라고 구분 지을 수 있다(Osmond&Martin, 1975). 한국적 맥락에서는 유교적 관념을 바탕으로, 성역할 태도의 구분이 가능하다.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하여 이분법적이고 고정된 태도를 지닌 경우, 이를 '전통적(traditional)' 혹은 '가부장적(patriarchal)' 성역할 태도로(김재엽 외, 2010; 이미숙, 2000), 반대로 성별에 따른 역할의 내용을 고정하지 않고 여성과 남성 모두 동등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경우, 이를 '현대적(modern)' 혹은 '평등한(egalitarian)' 성역할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류연규 · 김영미, 2012; 황은, 2004; 김혜성 · 그레이스정, 2019).

성역할 태도는 그 자체로 여성의 주관적인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부 연구에서 나타난다. 성역할 태도와 여성의 만족감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은 주로 결혼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결혼 만족감 혹은 행복감을 측정 변인으로 활용한 연구들이 다수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이미숙, 1996; 이수연,

2000; 이여봉, 2010).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으로는, 여성 본인이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을 경우, 기존에 불평등하게 자리 잡은 가사 및 양육 분담에 대해 불만스러움을 덜 느끼게 되고, 이것이 결혼만족도를 높인다는 설명(이여봉, 2010)이 일반적이다. 성역할 태도가 행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김영혜, 2004)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역할 태도가 행복이나 삶에 대한 만족감의 젠더 특수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활용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주혜진, 2017).

한편, 기존의 사회질서나 젠더 관계 구조에 순응하는 전통적인 태도가 꼭 행복감을 이끄는 것은 아니다. 서문기(2015)의 연구에서는 반대로 남성중심적 성별분업 가치관이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결혼 행복감과 부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는 연구(이진숙 · 최원석, 2011)도 존재한다.

정리해보면, 성역할 태도는 삶의 만족도에 그 자체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물론 그 방향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가사 및 돌봄노동의 분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분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성역할 태도를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3. 가사분담-성역할 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성역할 태도는 앞서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사분담의 원리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역할관념가설(Role ideology)에 따르면, 한 사람의 역할에 대한 관념과 의식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사람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의 경우라면 보다

소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반대로,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지닌 사람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전통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여겨진 가구 내 가사분담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성역할태도가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항상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특히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의 평등한 성역할 태도가 가사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논문들은 다수 존재했지만(김진욱 · 권진, 2017; 허수연, 2008), 여성의 성역할태도는 본인의 노동시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김진욱, 2008; 이창순, 2014; 허수연, 2008).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식적 차원에서는 점차 전통적 성역할 규범을 탈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반드시 평등한 가사분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비교적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과 가정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주로 여성에게 육아와 가사 등을 기대하게 된다. 여성의 취업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가구 내에서의 가사와 돌봄 노동을 여성이 수행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취업을 지지하는 보수주의' 유형이 다수인 한국 사회에서의 여성들은 임금노동을 장려받으면서도 가족 돌봄과 가사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어쩔 수 없이 수행하게 된다(박경순 · 박영란, 2018; 이혜정 · 송다영, 2020). 이러한 경향은 아래의 <표 1>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내에서도 성역할 인식은 이미 2004년부터 절반 이상이 평등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에는 남성의 약 60%가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들이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부담하고 있으며, 남성-여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는 크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표 1>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 인식과 가사노동시간의 변화

		2004		2009		2014		2019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성역할인식(%)	전통	49.2	35.2	45.0	33.4	43.3	28.3	40.2	16.6
	평등	50.8	64.8	55.0	66.0	56.0	71.0	59.8	83.4
평일 가사노동 시간(분)		0:16	2:37	0:17	2:23	0:21	2:24	0:34	2:19

* 자료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2004-2019)

박종서(2013)는 이처럼 인식의 차원에서는 전통적 성역할 규범을 탈피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가사와 양육 등을 여성이 전담하는 행위에 대해 실제와 인식 간 간극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만일 여성이 젠더 관계구조에 대해 불평등함을 더 강하게 인지하고 있고,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면 강한 인지 부조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혜진(2017)은 이러한 인지 부조화에서 오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비합리적이지만 부조화를 야기하는 인지 정보 그 자체를 변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정치적·문화적 헤게모니를 남성이 장악한, 남성성 중심의 사회라면 그러한 남성성과 같은 태도를 가질 때 실제 행위와 인식 간의 간극이 줄어들어 인지 부조화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를 분석할 때, 성역할 태도와 그들이 실제로 분담하고 있는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의 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위의 이론적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우선,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아내의 가사노동시간 및 돌봄노동시간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일관된 방향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연령이 높은 여성일수록 오히려 가사노동시간이 개인의 행복감을 높이는 결과를 나타낸 선행연구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성역할 태도를 모형에 상호작용항으로 포함한다면, 이전에 나타나지 않던 변수 간 관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역할 태도는 그 자체로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가사 및 돌봄의 분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인의 인식과 실제 행위가 일치할 때에는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가사노동을 여성의 몫으로 생각하고 수용하는 전통적인 태도를 가진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과한 양의 가사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오히려 여성의 행복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채로 · 이기영, 2004). 이를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1)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경우,
가사노동 분담률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curve−linear 모양을 나타낼 것이다.
(가설 1−2)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경우,
가사노동 분담률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감소할(−) 것이다.

한편, 돌봄노동의 경우에는 가사노동과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2−1)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경우,
돌봄노동 분담률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2−2)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가진 경우,
돌봄노동 분담률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감소할(−) 것이다.

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24시간 동안의 시간 활용 현황 및 의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양식을 파악할 수 있다. 조사주기는 5년이며, 조사 규모는 약 29,000명으로 전국의 12,435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이 응답할 수 있다. 응답자당 2일씩 10분 단위의 시간일지를 일기를 쓰듯 작성하기 때문에 개인이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

분석 대상으로는 현재 혼인상태를 '배우자 있음'으로 체크한 사람들 중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만 고려하였다. 배우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 내 가사노동의 분담과 돌봄노동의 분담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는 총 7,103가구이며, 남녀를 모두 합하면 14,206명이다. 이들을 2일에 걸쳐 조사한 누적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분석에 활용된 표본은 총 28,412명으로 나타나 있다. 일부 모형에서는 비교를 위해 남녀를 모두 표본으로 활용하였고, 결론적으로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활용하기 위한 모형에서는 여성 14,206명만을 활용하였다.

제 2 절 변수정의

1. 종속변수 : 삶의 만족도

종속변수로는 '삶의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귀하는 평소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묻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까지 5점 척도로 답할 수 있게 되어있다. 숫자가 클수록 만족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역코딩하였고, 5점에 가까울수록 본인의 삶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독립변수 : 가사노동분담률, 돌봄노동분담률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가구 전체의 가사노동·돌봄노동 중 얼만큼을 분담하고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내어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한 만큼 절대적 시간의 양을 분 단위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에 사용하는 절대적 시간은 사회적 지위나 가구 구조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는 단점이 있다(Greenstein, 1996). 예를 들어, 소득 상위 계층은 가사와 돌봄을 시장 재화나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고, 하위 계층은 가사를 그들 스스로의 노동으로 모두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가구 고유번호를 기준으로 가구별로 가사노동, 돌봄노동 시간의 합을 구한 뒤 남성과 여성이 분담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한다.

통계청의 시간사용일지는 개인유지, 일, 학습,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참여 및 봉사활동, 교제 및 여가, 이동, 기타의 9개 대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 중에서 '가정관리'에는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집관리, 가정관리 관련 물품 구입, 가정경영이 포함되어있

다. 한편, ‘가족 보살피기’의 대상에는 미취학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배우자, 부모·조부모가 모두 포함된다. 연구에 따라 가사노동을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 보살피기를 제외하고 가정관리만으로 측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족 보살핌은 아내의 일과 가정의 병행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특히나 육아문제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보살핌 역시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할 가사노동이기 때문에, 이 항목도 보살핌의 영역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관리만으로 구성된 가사노동시간과 돌봄노동시간을 각 가구별로 구한 뒤, 아내-남편이 기여하는 비중을 계산하여 2개 값을 종속변수를 활용하였다.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로 분류되는 세부 행동들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가정관리’와 ‘가족 보살피기’는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코드의 대분류이며, 중분류는 표에 번호를 표기하였으며, 이하 항목은 세부 분류이다.

3. 상호작용항 : 성역할태도

상호작용항으로 활용한 변수는 성역할 태도이다. ‘성역할인식’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문항에 대한 답변을 ‘매우 찬성·찬성(1)’과 ‘반대·매우 반대(0)’로 구분하여 binary 값을 부여하였다. 0은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1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나타낸다.

4. 통제변수 : 성별, 연령, 소득, 종사상 지위, 교육연수, 돌봄 필요 가구원수, 건강상태

통제변수로는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 성별, 연령, 소득,

종사상 지위, 교육연수, 개인의 건강상태를 활용하였다. 또한, 가사 및 돌봄노동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돌봄 필요 가구원 유무를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성을 1, 여성을 0으로 구분했고, 연령은 연속변수 그대로 활용했다. 소득비는 전체 부부의 소득(1)에서 개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어 활용하였다. 아내의 경우, 0에 가까울수록 남편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1에 가까울수록 남편이 아내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종사상 지위는 상용종사자, 임시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무직으로 구분하였다.

<표 2> 생활시간조사 행동 분류표

가정관리	가족 보살피기
[1] 음식준비	[1] 만10세 미만 아이 돌보기
식사준비	신체적돌보기
간식・비일상적음식만들기	간호하기
설거지・식후정리	훈육 및 공부 가르치기(봐주기)
[2] 의류관리	책 읽어주기, 대화하기
세탁하기	아이와 놀아주기, 스포츠 활동하기
세탁물 건조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 등 방문
다림질 및 옷 정리	기타 돌보기
의류 수선 및 손질	[2] 만10세 이상 미성년자 돌보기
[3] 청소 및 정리	[3] 장기 돌봄 필요 성인 돌보기
청소	[4] 독립적인 성인 돌보기
정리	
쓰레기 분리 및 버리기	
[4] 주거 및 가정용품 관리	
[5] 차량 관리 및 유지	
[6] 반려동물 및 식물 돌보기	
반려동물 돌보기	
식물 돌보기	
반려동물 및 식물 서비스 받기	
[7] 상품 및 서비스 구입	
상품 매장쇼핑	
상품 온라인쇼핑	
서비스 현장 구입	
서비스 온라인 구입	
기타 쇼핑 관련 행동	
[8] 기타 가정관리	

제 3 절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분담 비율의 격차, 그리고 가사 및 돌봄노동시간의 비중과 성역할 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Satisfaction_i = \alpha + \beta_1 Housework_i + \beta_2 Role + \beta_3 Housework \times Role_i + \beta_4 X_i + \epsilon_i$$
$$Satisfaction_i = \alpha + \beta_1 Care_i + \beta_2 Role + \beta_3 Care \times Role_i + \beta_4 X_i + \epsilon_i$$

이때 $Satisfaction_i$은 삶의 만족도, $Role_i$는 개인의 성역할 태도를 의미하며, 핵심변수인 가사노동 혹은 돌봄노동의 분담률과 성역할 태도 간의 상호작용항을 식에 포함하였다. X_i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다른 인구사회학적 변수들로, 나이와 소득비, 직업, 교육연수, 건강상태, 설문 날짜의 요일, 돌봄 필요 가구원 여부를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남성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토빗회귀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가사노동·돌봄노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돌봄노동을 수행하지 않는 이들의 노동시간이 순수한 0의 값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생활시간조사는 좌측 절단된(left-censoring) 자료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절단된 형태의 분포를 나타내기 때문에, 토빗회귀분석이 더욱 적합하다. 남편의 가사노동 혹은 돌봄노동 분담률을 하나의 함수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최대우도방법(Maximum Likeliood method)을 활용하여 추정하는 것이다. 토빗회귀모형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y_i{}^* = \alpha + \beta\chi_i + e_i \begin{cases} y_i = y_i{}^* & (y_i{}^* > 0) \\ y_i = 0 & (y_i{}^* \leq 0) \end{cases}$$

<표 3> 변수들의 기술통계 (N=28,412)

Variables				Mean	SD	Min	Max
종속변수	삶의 만족도	남편		3.27	0.90	1	5
		아내		3.32	0.01	1	5
독립변수	남편	가사노동분담률		(9.65)			
		돌봄노동분담률		(7.83)			
	아내	가사노동분담률		(39.70)			
		돌봄노동분담률		(19.18)			
상호작용항	성역할 태도	전통적		(9,276)			
		성평등		(19,136)			
통제변수	남편	나이		55.13	14.05	21	94
		소득비		71.10	27.73	5.88	100
		직업	상용직	(46.30)			
			임시직	(8.12)			
			자영업	(24.22)			
			가족	(0.97)			
			무직	(20.39)			
		교육연수		12.80	3.66	0	22
		건강상태		3.37	0.73	1	5
	아내	나이		52.20	13.41	19	91
		소득비		34.03	27.16	5.88	100
		직업	상용직	(46.30)			
			임시직	(12.32)			
			자영업	(8.27)			
			가족	(7.22)			
			무직	(46.89)			
		교육연수		12.00	3.81	0	22
		건강상태		3.29	0.75	1	5
	돌봄 필요 가구원	있음		7,748			
		없음		20,664			

제 4 장 분석결과

제 1 절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의 성별 격차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가사 및 돌봄노동 분담률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본 절에서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분담이 실제로 어떠한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의 분담에 있어서 성별 격차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절대적인 시간량 또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며, 이 부분 역시 수많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지적된 부분이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라면, 가구 전체의 가사노동량 혹은 돌봄노동량은 외벌이 가구에 비해서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분담 비율을 변수로 활용한 바 있다.

가사노동 분담률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6%p, 돌봄노동 분담률은 7%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분담률과 돌봄노동분담률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로는, 소득과 종사상 지위, 요일이 있다. 우선 소득은 가사노동분담률과 돌봄노동분담률을 낮추는 영향이 있었다. 또한,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과 무직은 가사 및 돌봄노동을 높게 분담하고 있었다. 평일일수록 가사노동 분담률은 낮게 나타났지만, 돌봄노동은 오히려 평일에 그 분담률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분담률의 차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분담 비율을 비교해보면,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

<표 4> 성별에 따른 가사노동분담률 및 돌봄노동분담률의 차이

		y = 가사노동분담률		y = 돌봄노동분담률	
		β	S.E	β	S.E
성별(남성=1)		−26.261***	0.227	−7.331***	0.348
성역할 태도(전통=1)		−0.764***	0.197	−0.562	0.301
돌봄 필요 가구원(있음=1)		0.040	0.232	11.749***	0.655
연령		−0.016	0.010	−0.148***	0.015
소득		−0.032***	0.004	−0.040***	0.006
교육연수		−0.056	0.030	0.327***	0.047
건강		0.672***	0.122	0.358	0.186
종사상 지위	상용직	.	.	.	.
	임시직	1.984***	0.332	2.553***	0.508
	자영업	−0.752**	0.275	0.816	0.421
	무급가족 종사자	4.371***	0.504	−3.632***	0.770
	무직	9.242***	0.386	10.291***	0.590
요일(평일=1)		−1.676***	0.180	0.964***	0.275
상수항		39.657***	0.904	17.543	1.381
N		28,412		28,412	
F		2105.80		361.22	
Adjusted−R^2		0.5263		0.1598	

*** p<0.001, ** p<0.01, * p<0.05

<표 5> 가사노동량과 돌봄노동량이 0(분)으로 기록된 남성의 비율

	가사노동	돌봄노동
평일	3,872(명)	6,383(명)
주말	1,812(명)	4,067(명)
합계	5,684(40.01%)	10,450(73.56%)

위의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시간량을 보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0분으로 기록된 표본이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나고 있다. 맞벌이 혹은 남성 외벌이인 경우, 평일에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여건임을 감안하더라도 주말 역시 그 수가 적지 않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가사노동은 남성 전체 14,206명 중 40%, 돌봄노동의 경우에는 약 73%가 전혀 가사노동, 혹은 돌봄노동을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가사노동 혹은 돌봄노동이 남성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별 격차에도 불구하고,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성별 가사노동 시간[1)]'의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바로 이전 조사인 2014년과 비교해보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남성의 비율과 가사노동시간은 모두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여성의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미미하게 줄어들어, 성별 간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성별 가사노동시간 격차

1)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에서는 '가사노동'에 돌봄노동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포함한 영역으로 봐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성별 가사노동시간에 있어서 그 격차가 줄어든 것은 맞으나, 2019년에도 여전히 가사노동의 행위자는 여성인 경우가 압도적이다. 앞서 제시된 <표 5>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남성 전체의 가사노동시간은 5년 전에 비해서 미미하게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가사노동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남성들이 대다수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가사노동 혹은 돌봄노동을 평균보다 많이 수행하는 남성들은 어떤 이들일까?

<표 6> 남성의 가사노동분담률 및 돌봄노동분담률에 대한 토빗회귀분석

		y = 가사노동분담률		y = 돌봄노동분담률	
		β	S.E	β	S.E
성역할 태도(전통=1)		−1.997***	0.238	−0.953**	0.361
돌봄 필요 가구원(있음=1)		0.217	0.301	5.638***	0.455
연령		−0.056***	0.013	−0.044*	0.020
소득		−0.041***	0.005	−0.023**	0.008
교육연수		0.070	0.041	0.185**	0.062
건강		0.643***	0.162	0.294	0.246
종사상 지위	상용직	.	.	.	.
	임시직	0.326	0.421	−1.433*	0.637
	자영업	−0.436	0.285	−0.707	0.430
	무급가족 종사자	2.298*	1.146	−2.908	1.731
근로시간		−0.094***	0.008	−0.063***	0.013
맞벌이/ 외벌이	맞벌이	.	.	.	.
	남자 외벌이	−2.644***	0.266	−2.786***	0.402
	벌이없음	1.998	8.562	−9.767	12.940
상수항		17.655***	1.350	11.408***	2.040
N		11,324		11,324	
LR Chi2		589.02***		435.02***	

*** p<0.001, ** p<0.01, * p<0.05

위의 <표 6>은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사노동 분담률과 돌봄노동 분담률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토빗회귀분석(Tobit regression model)을 실시한 결과이다. 가사노동분담률과 돌봄노동분담률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역할태도와 연령, 소득, 근로시간, 그리고 맞벌이/외벌이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성역할태도가 평등한 유형보다는 전통적인 태도를 갖는 남성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분담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연령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가졌다.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그리고 근로시간이 많을수록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참여하는 비중이 적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일 때보다는 남성 외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가사노동·돌봄노동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개인의 건강은 가사노동에 한해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구원의 유무는 돌봄노동에 한해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 차이는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무급가족종사자일 경우에는 상용직일 때에 비해 가사노동을 더 많이 분담했고, 임시직의 경우에는 상용직에 비해 돌봄노동에 덜 참여하였다.

결론적으로 남성만 대상으로 놓고 가사·돌봄노동의 분담을 살펴보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가구 내 노동 분담 이론이 어느 정도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상대적 자원 이론에 따라 남성의 소득 비중이 높을수록 가사·돌봄노동 분담 비중이 낮아졌고, 근로시간의 증가는 곧 가용시간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시간 가용성 이론 역시 유의미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의 성역할 태도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제 2 절 가사분담-성역할 태도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본 절에서는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률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지 않은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의 <표 7>에서 좌측의 Model 1은 가사노동분담률을 핵심변수로 투입하여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Model 2는 돌봄노동분담률을 투입하여 그 효과를 살펴본 결과이다.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밝히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남성을 함께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두 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알 수 있다시피, 가사노동 혹은 돌봄노동의 분담률은 개인의 삶의 만족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선, 성별에 따라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갖는 영향력이 차별적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앞의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의 경우에는 여전히 가사 혹은 돌봄과는 무관한 듯한 삶을 사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았다. 외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남성의 경우, 실제 가사부담시간의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고려요인이 될만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진우 · 금현섭, 2020). 이는 생활시간조사의 '피곤함의 이유'라는 항목을 통해서도 추측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남성의 72.11%(8,024명)은 '직장 일'이 피곤함의 이유였다. 그에 비해 자녀양육(2.86%)과 가사(1.38%)는 굉장히 작게 느껴진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직장 일(37.84%)의 비중이 적었고, 자녀양육(16.92%)과 가사(18.57%)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성별 역할분담에 대해 비교적 평등한 방향으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진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실질적인 분담의 평등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 응답 결과이기도 하다.

<표 7>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분담률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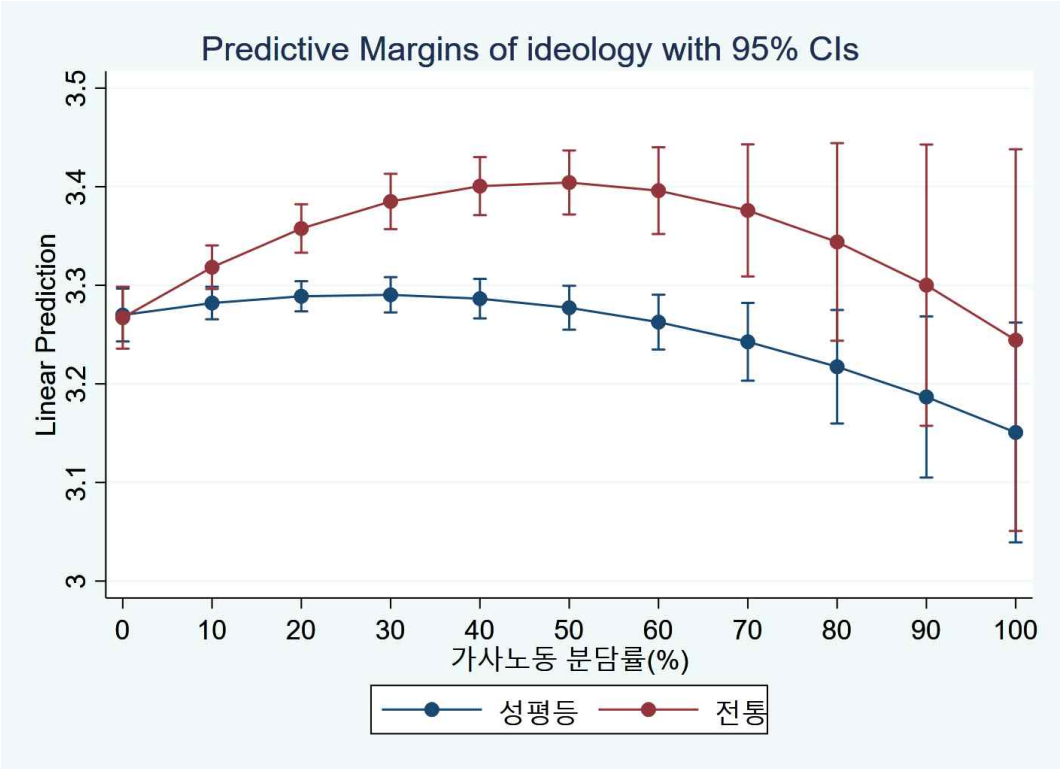
		[Model 1] 가사노동		[Model 2] 돌봄노동	
		β	S.E	β	S.E
성별(남성=1)		−0.158***	0.016	−0.164***	0.013
가사노동분담률		0.000	0.000	.	.
돌봄노동분담률		.	.	0.000	0.000
성역할 태도(전통=1)		0.059***	0.011	0.06***	0.011
돌봄 필요 가구원(있음=1)		−0.040**	0.013	−0.044***	0.013
연령		0.003***	0.001	0.003***	0.001
소득		0.001***	0.000	0.001***	0.000
교육연수		0.050***	0.002	0.050***	0.002
건강		0.322***	0.007	0.322***	0.007
종사상 지위	상용직	.	.	.	.
	임시직	−0.099***	0.019	−0.100***	0.019
	자영업	0.002	0.015	0.002	0.016
	무급가족 종사자	−0.061*	0.029	−0.059*	0.029
	무직	0.002	0.015	0.002	0.015
요일(평일=1)		0.024*	0.010	0.023*	0.010
상수항		1.480***	0.052	1.486***	0.050
N		28,412		28,412	
F		301.00***		301.15***	
Adjusted−R^2		0.1207		0.1208	

*** p<0.001, ** p<0.01, * p<0.05

다음으로는, 가사분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모형에 성역할태도를 상호작용항으로 투입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결과는 <표 8>과 같다. 왼쪽의 Model 3은 가사노동분담률과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이고, 오른쪽의 Model 4는 돌봄노동분담률과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이다.

우선 주목할 점은, 가사노동분담률은 돌봄노동분담률과 다르게 삶의 만족도와 비선형적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다. Model 3에서 가사노동분담률의 제곱항이 매우 작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음의 값을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가사노동 분담률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 증가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가사노동 분담률이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경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그래프로 확인해보면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나타난다.

<그림 2> 가사노동 분담률*성역할 태도에 따른 여성의 삶의 만족도



<표 8> 가사분담*성역할 태도가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Model 3] 가사노동		[Model 4] 돌봄노동	
		β	S.E	β	S.E
가사노동분담률		0.003	0.002	.	.
가사노동분담률(제곱)		−0.000*	0.000	.	.
돌봄노동분담률		.	.	−0.000	0.000
성역할태도(전통=1)		0.016	0.071	0.041***	0.012
성역할태도(전통=1)* 가사노동분담률		0.005***	0.003	.	.
성역할태도(전통=1)* 가사노동분담률(제곱)		−0.000	0.000	.	.
성역할태도(전통=1)* 돌봄노동분담률				0.002***	0.000
돌봄 필요 가구원(있음=1)		−0.039***	0.013	−0.043***	0.013
연령		0.003***	0.001	0.003***	0.001
소득		0.001***	0.000	0.001***	0.000
교육연수		0.050***	0.000	0.050***	0.002
건강		0.320***	0.007	0.322***	0.007
종사상 지위	상용직	.	.	.	.
	임시직	−0.100***	0.019	−0.099***	0.019
	자영업	0.004	0.015	0.001	0.015
	무급가족 종사자	−0.068*	0.029	−0.060*	0.028
	무직	−0.006	0.015	0.001	0.015
요일(평일=1)		0.026**	0.010	0.023*	0.010
상수항		1.447***	0.058	1.494***	0.050
N		14,206		14,206	
F		188.46		280.65	
Adjusted−R^2		0.1217		0.1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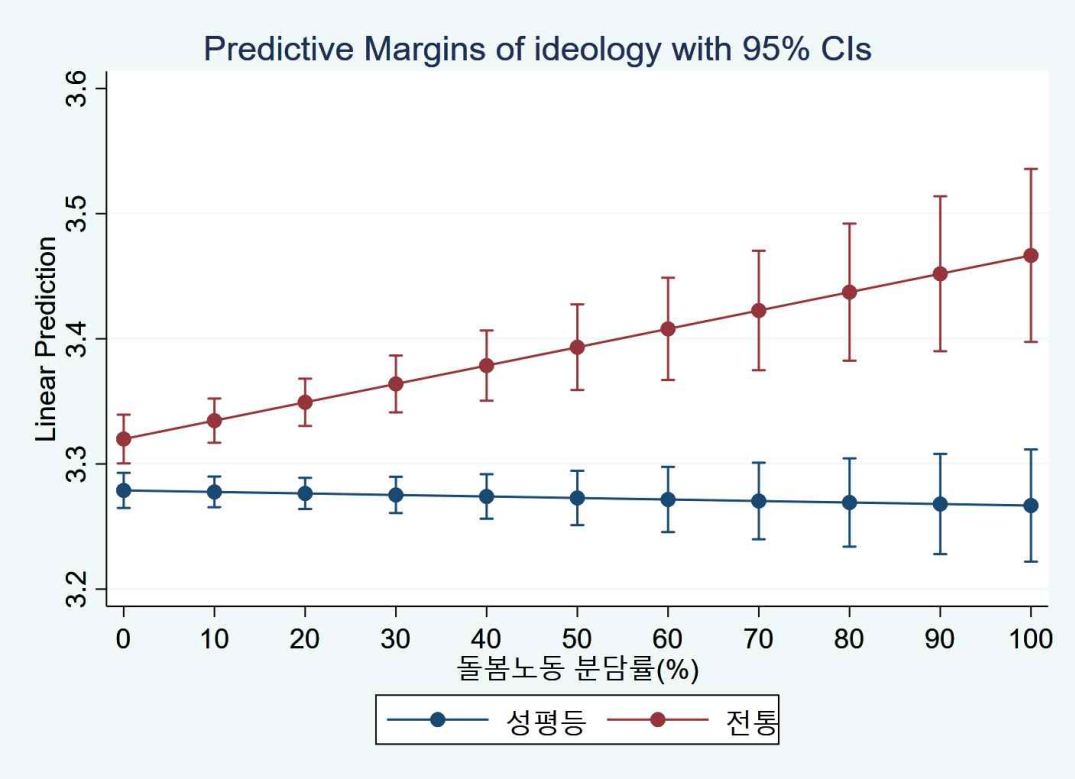
*** p<0.001, ** p<0.01, * p<0.05

<그림 2>에서 나타내는 것은 두 가지이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사노동분담률이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역할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성평등한 여성의 경우에는 가사노동분담률이 증가함에 따라 거의 꾸준히 삶의 만족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는 여성의 경우에는 가사노동분담률이 0%에서 약 50%가 되는 수준까지는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점차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성역할태도에 따라 가사노동분담률이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성역할 태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 역시 나타나고 있다. 가사노동분담률이 80% 이상인 구간에서는 성역할 태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이하의 구간에서는 성평등한 여성의 만족도가 전통적인 여성의 만족도보다 내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설 1-1)과 (가설 1-2)를 지지하는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들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사노동분담률에 대한 모형인 Model 3의 경우, 돌봄 가구원이 존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교육연수가 많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 중에서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과 무급가족종사자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평일과 주말 중에서는 평일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Model 4에서도 마찬가지로 돌봄노동분담률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성역할태도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다만, 가사노동분담률과는 달리 제곱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에 포함되지 않아, 단선적인 모형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때문에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돌봄노동을 많이 분담하는 것이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지며, 성평등한 개인은 돌봄노동 분담률에 따른 삶의 만족도에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돌봄노동 분담률*성역할 태도에 따른 여성의 삶의 만족도



돌봄노동 분담률을 포함하고 있는 Model 4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난 변수들을 살펴보면, Model 3과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돌봄 가구원이 존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교육연수가 많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 중에서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과 무급가족종사자의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평일과 주말 중에서는 평일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는 (가설 2-1)과 (가설 2-2)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역할을 수용하는 여성의 경우에는 가족 내에서 필요로 하는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여성 고유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가사노동과 비교하더라도 돌봄노동은 특히나 '노동'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자 여성성의 수행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 5 장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의 분담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개인의 성역할태도에 의한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총량이 각 가구의 환경마다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절대적인 시간량이 아닌 분담 비율을 핵심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에는 유사성과 차별성이 존재했다. 예를 들어,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교육수준이나 가구소득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평일보다 주말에 낮은 것은,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수행하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으로 인해 주말이 더 이상 휴식이나 여가의 시간이 아님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오히려 주중에 비해 주말의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개인의 성역할 태도가 갖는 조절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은 여성의 삶의 만족도를 일관되게 낮추는 영향을 갖지 않았다. 이는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혼 여성의 삶에서 가사노동의 분담은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사노동의 총량이 가구마다, 그리고 환경마다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각 가구별 가사의 총량을 구한 뒤, 아내와 남편이 각각 분담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독립변수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을 갖는다.

한편, 개인의 성역할 태도를 상호작용항으로 투입했을 때에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갖는 여성의 경우에는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을 여성의 몫으로 생각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 돌봄노동의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와 단선적인(linear) 관계를 보이는데,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에 따라 삶의 만족도에 갖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예

상대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는 여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돌봄노동 분담률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대로, 성평등한 여성의 경우에는 돌봄노동 분담률이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다. 그리고 두 집단 간의 삶의 만족도 간 차이는 모든 구간에서 유의미하게 벌어졌다.

한편, 가사노동의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curve-linear한 U자형(위로 볼록한)으로 나타났고, 성역할태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났다.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는 여성의 경우에는, 가사노동 분담률이 0%에서 50%까지 증가함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평등한 성역할 태도를 갖는 여성의 경우에는, 가사노동 분담률의 증가가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가사노동 분담률이 80% 이상인 구간을 제외하고 모든 구간에서 두 여성 간에 삶의 만족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삶에 있어서 가사 및 돌봄노동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여전히 대다수의 여성들은 개인의 성역할태도와는 달리, 현실적인 선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대부분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기혼 여성의 삶의 만족도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남성들이 실질적으로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경우에도, 여성들이 이 몫을 전부 당연히 수행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인식적인 차원에서는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아예 0분으로 기록된 남성들이 여전히 대다수임을 보았을 때, 제도적인 지원의 미비와 장시간 근로 등은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성의 이중부담이 강화되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인식이 진보하는 만큼 이에 조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되면, 궁극적으로 기혼 부부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강유진, 2015, 부부단독가구노인의 가사분담, 평등감, 의사소통이 부부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학회지, 26(2), 361-374.

강재연 · 조윤희 · 박효서, 2000, 2000학년도 안산캠퍼스 신입생들의 심리적 특성, 대학생활연구, 18,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고선주, 1997, 부모기 전이 후 취업부부의 자녀 양육 참여 및 관련 변수,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 115-139.

김근식 · 윤옥화, 2009, 기혼취협여성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구조적 관계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3(2), 167-188.

김민녀·채규만, 2006,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655-671.

김소영 · 진미정, 2016, 부부의 가사노동시간변화: 2004년-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4(3), 65-84.

김소정, 2013,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인기 인구 집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1), 89-111.

김송이, 2012,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경험 연구: 감정노동과 관계적 노동 속성을 중심으로,『여성연구』, 82(1), 103-136.

김수정 · 김은지, 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교환 혹은 젠더보상?, 한국사회학, 41(2), 147-174.

김영미, 2012,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이 성역할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분석, 사회보장연구, 28(2), 211-241.

김영미 · 류연규, 2013, 젠더레짐에 따른 성역할 태도 결정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스웨덴, 독일, 한국비교-, 가족과 문화, 25(2), 90-128.

김영혜, 2004, 노년기 젠더관계와 심리적 복지감-유배우 노인의 성역할태도와 가사노동분담의 영향에 대하여, 한국인구학, 27(1), 1-30.

김은경 · 심준섭, 2016, 성역할 태도가 일-가정 양립 갈등에 미치는 효과, 국가정책연구, 30(4), 323-347.

김재엽 · 김희진 · 최장원, 2010, 직장 남성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와 아내 폭력의 관계에서 나타난 긍정적 의사소통(TSL)의 조절효과, 한국소통학보, 13, 39-70.

김주현 · 문영주, 2010, 맞벌이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결혼생활만족과 일만족에 미치는 영향-일 · 가정 갈등과 일 · 가정강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2), 109-126.
김진욱, 2008, 일하는 어머니들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복지정책, 35, 197.
김진욱 · 권진, 2017, 한국 기혼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에 대한 연구: 생활시간조사 1999년~2014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5, 181-215.
김태현 · 박주희, 2005,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부부관계 향상,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79-106.
김혜성 · 그레이스정, 2019, 행복한 대한민국의 '김지영'을 위하여-남편의 성역할 태도, 양육 분담이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9(1), 35-64.
류연규 · 김영미, 2012, 복지국가의 젠더 격차와 성역할 인식 차이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2(11), 166-191.
류임량, 2016, 젠더 관점에서 본 재가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특성과 협상자원, 한국여성학, 32(3), 101-138.
문지선, 2017, 부부의 성역할 태도로 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51(2), 191-232.
박경순 · 박영란, 2018, 여성노인의 성역할태도와 우울의 관계: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57, 29-56.
박기남, 2009, 유료 재가 노인 돌봄 노동과 돌봄 관계의 특성, 가족과 문화, 21(3), 73-107.
박미진, 2020, 남성의 돌봄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노동시간 특성에 따른 부모 ·부성휴가제도 효과의 차이 분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박종서, 2013, 가족 내 가사분담과 성역할 인식에서 나타나는 양성평등 실태, 보건복지포럼, 199, 28.
배호중, 2015, 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시간-홑벌이 가구 남편과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1(4), 151-181.
변미리·최정원·박민진·이혁준, 2015, 메가시티 삶의 질과 서울형 행복지표,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1-136.
서문기, 2015, 문화적 가치체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정책적 함의, 문화정책논총, 29(2), 78-102.
손소영, 2013, 아버지 역할이 나타난 TV광고 분석 연구, 14(5), 219.
손영빈·윤기영, 2011, 유치원 평가에 참여한 교사들의 평가준비, 평가수행, 평가이후 과정 경험이야기, 67, 299-325.

안미영, 2016, 한국 맞벌이 부부의 고용 형태와 가족 내 노동 분업의 젠더 불평등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112, 13-40.
오윤자·최서영, 2017, 맞벌이부부 여성배우자의 결혼생활행복감 연구, 2017(5), 242-243.
유계숙 외, 2011,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17-136.
윤기봉 · 지연경, 2017, 유아기 자녀를 둔 남편의 양육참여 및 맞벌이 부부의 양육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종단적 자기-상대방 효과, 인간발달연구, 24(3), 133-153.
윤자영, 2018, 돌봄노동 시간 개념과 측정: 자녀 돌봄노동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35(2), 171-200.
원숙연, 2014, 성-역할 고정관념의 지형변화와 여성정책에 갖는 함의: 1996년과 2010년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0(3), 141-171.
은기수, 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32(3), 145-171.
이미숙, 1996, 맞벌이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정체감이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집, 16(1), 153-173.
이미숙, 2000, 부인의 취업상태에 따른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부인의 가정성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18(4), 145-161.
이미현, 201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4(4), 265-285.
이수연, 2000, 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 및 가족관계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숙진, 2011, 돌봄노동의 제도화와 여성들의 차이, 페미니즘연구, 11(2), 49-83.
이승주 · 이소민, 2017,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사회적 규범에 대한 여성의 인식이 가사노동시간의 설붕평등에 영향을 미치는가? 합리적 행위이론을 통한 매개효과분석, 한국가족복지학, 58, 5-36.
이승호 · 박미진, 2017,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퇴근시간과 일과 후 생활시간의 관계, 한국사회정책, 24(1), 117-151.
이여봉, 2010, 부부역할과 여성의 결혼만족도 : 연령범주별 분석, 한국인구학, 33(1), 103-131.
이진숙·최원석, 2011, 기혼 직장여성의 일-가족양립갈등 경로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0(1), 169-198.
이진우 · 금현섭, 2020, 맞벌이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가사부담과 성역할 인식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2(1), 34-69.
이창순, 201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40(3), 29-54.
이혜정·송다영, 2020, 성역할태도-영유아돌봄태도의 군집유형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페미니즘 연구, 20(1), 83-121.
임은정 · 홍백의, 2019, 한국 기혼 부부의 가사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부의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6(4), 41-64.
장인수 · 우해봉, 2017, 기혼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차이와 영향요인 분석, 여성연구, 95(4), 41-72.
장인수, 2020, 한국의 성별 가사노동시간 배분 양상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2007, 2016년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40(2), 446-476.
정윤태 · 서재욱, 2016, 성역할 태도와 맞벌이 태도의 차이에 관한 연구: 기혼 · 유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한 유형화,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2), 143-160.
정해식 · 김성아, 2015, OECD BLI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삶의 질, 보건복지포럼, 227, 75.
정현숙, 2001, 디지털 시대, 협공 받는 중년기가족,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01(11), 33-45.
조혜선, 2003, 결혼만족도의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7(1), 91-115.
주은선·김사현·김민성, 2014, 한국 부모의 미취학아동 돌봄시간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0(2), 367.
주익현, 2012, 한국 맞벌이 부부 가사시간 결정요인 탐색-아내의 남편에 대한 경제의존도와 남편의 가사참여 여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099-1113.
주혜진, 2016, 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 평가(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389-404.
주혜진, 2017, 젠더화된 행복: 행복감에 대한 성역할 태도의 조절효과, 한국여성학, 33(2), 137-180.
차성란, 1998, 부부의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및 노동공평성 인지에 미치는 상호작용적 영향력, 대한가정학회, 36(9), 139.
채로·이기영, 200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65-281.
최희경, 2011, 노인시설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 감정노동으로서의 일반적 특징과 차별성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9, 113-138.
통계청, 2018, 일 · 가정 양립지표
통계청, 202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한준, 2015, 한국인 삶의 질의 사회적 결정요인, 국정관리연구, 10(2), 67.
허수연, 2008,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24(3), 177-210.
허수연, 2016, 여성가구주의 취업형태와 사회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1(3), 541.
허수연·김한성, 2019,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4, 5.
황은, 2004, 1991년도와 2002년도 남녀 대학생의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성역할 태도, 가정과삶의질연구, 22(1), 77-89.

Becker, G. S, 2009, A Treatise on the Family.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Bianchi, S. M., Milkie, M. A., Sayer, L. C., and Robinson, J. P., 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228.*
Bittman, M., Paula England, Liana Sayer, Nancy Flobre, and George Matheson, 2003, "When Does Gender Trump Money? Bargaining and Time in Household Work",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1), 186-214.*
Blood Jr, R. O., & Wolfe, D. M., 1960, Husbands and wives: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Brines, J, 1994, Economic Dependency,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3), 652-688.
Broverman, I. K. and Vogel, S. R. and Broverman, D. M. and Clarkson, F. E. and Rosenkrantz, P. S, 1972, Sex-role stereotypes: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s 28(2): 59-78.

Coverman, S, 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The Sociological Quarterly 26(1): 81-97.

Esping-Andersen, G, 2014, 『끝나지 않은 혁명』 (김. 주은선, Trans.). 나눔의집.

Ferrant, G., Pesando, L.M., and Nowacka, K., 2014, *Unpaid Care Work: The missing link in the analysis of gender gaps in labour outcomes, OECD Development Centre December.*

Greenstein, T. N. 1996.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Interactive Effects of Wives' and Husbands' Gender Ideolog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8(3): 585-595.

Greenstein, Theodore N, 1996, "Gender ideology and perceptions of the fairness of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Effects on marital quality", *Social Forces, 74, 1029-1042.*

Greenstein, T. N., 2009,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Interactive effects of wives' and husbands' gender ideolog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585-595.*

Oakley, A, 1974, The Sociology of Housework, London: Martin Robertson.

Osmond, M. W., and Martin, P. Y, 1975, Sex and sexis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sex 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7(4), 744-758.

OECD, 2017, How's life? 2017: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OECD.

OECD, 2020,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OECD.

Rudolf, R., & Kang, S. J, 2015, Lags and leads in life satisfaction in Korea: When gender matters. Feminist Economics, 21(1), 136-163.

Shelton, Beth Anne and Daphne John, 1996,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299-322.*

Stickney, L. T., & Konrad, A. M, 2012, "Societal Institutions & Work & Family Gender Role Attitudes", Organization Management Journal, 9(4), 236-246.

Stevenson, B., & Wolfers, J, 2009, The Paradox of Declining Female Happines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2), 190-225.

Abstract

Effects of sharing housework·caring labor and gender role attitudes on satisfaction of life

Ji-young Lee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haring housework and caring labor on life satisfaction an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s gender role attitudes.

Existing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housework or caring labor has a close influence on women's life satisfaction. However, researches have been mainly conducted on one side or measuring care work without separating it from housework. Or, there were cases where the moderating effect of an individual's gender role attitude was not considered.

Even if married women enter the labor market and work like their husbands, they still suffer from the double burden of

being responsible for housework at home. Despite being encouraged to work on wages in the market, they cannot escape from the responsibility of family care and housework, and are forced to perform the role expected of women. However, this sequence of processes does not consistently have a negative impact on all women. This difference appears to be a difference in values for unequal division of household labor.

This study used the data from the 2019 Time-use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only considered cases of married couples living in the same house as their spouses. Samples corresponding to this condition are 14,206 men and women, a total of 28,412.

As a result of the study, when the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 gender role attitude was not considered, housework or caring work did not show the effect of consistently lowering women's life 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when an individual's gender role attitude was included as an interaction term, the effects of sharing housework and caring on individual's life satisfaction were different. First of all, in the case of women with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s, household labor and caring labor are considered to be women's responsibility, so it did not have the effect of lowering life satisfaction. Of course, the effects of housework and care labor on life satisfaction were a bit different. In the case of caring, it is considered to be a role and responsibility unique to women, and tends to be regarded as a performance of femininity and an expression of love. For this reason, the extent of being

considered "labor" is lower than that of household labor, indicating a linear relationship, and rather increases the satisfaction level of life. In the case of household labor, the share rate also increased the satisfaction level of life from 0% to 50%, but at more than half the level, it showed a curve-linear shape that lowered the satisfaction level of lif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women with equal gender roles, the more housework and caring labor, the lower the satisfaction level of life, was identified.

In conclusion, unlike men, housework and caring labor are clos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in women's lives. Contrary to an individual's gender role attitude, married women will live a more unhappy life if they are forced to share most of the housework and care due to realistic choices. It is suggested that an environment where men can actually participate in housework and care is needed to change the reality that does not improve unlike the improvement of the cognitive level.

Keywords : Housework, Caring labor, Life satisfaction, Gender role attitudes, Moderating effect
Student Number : 2019-27507